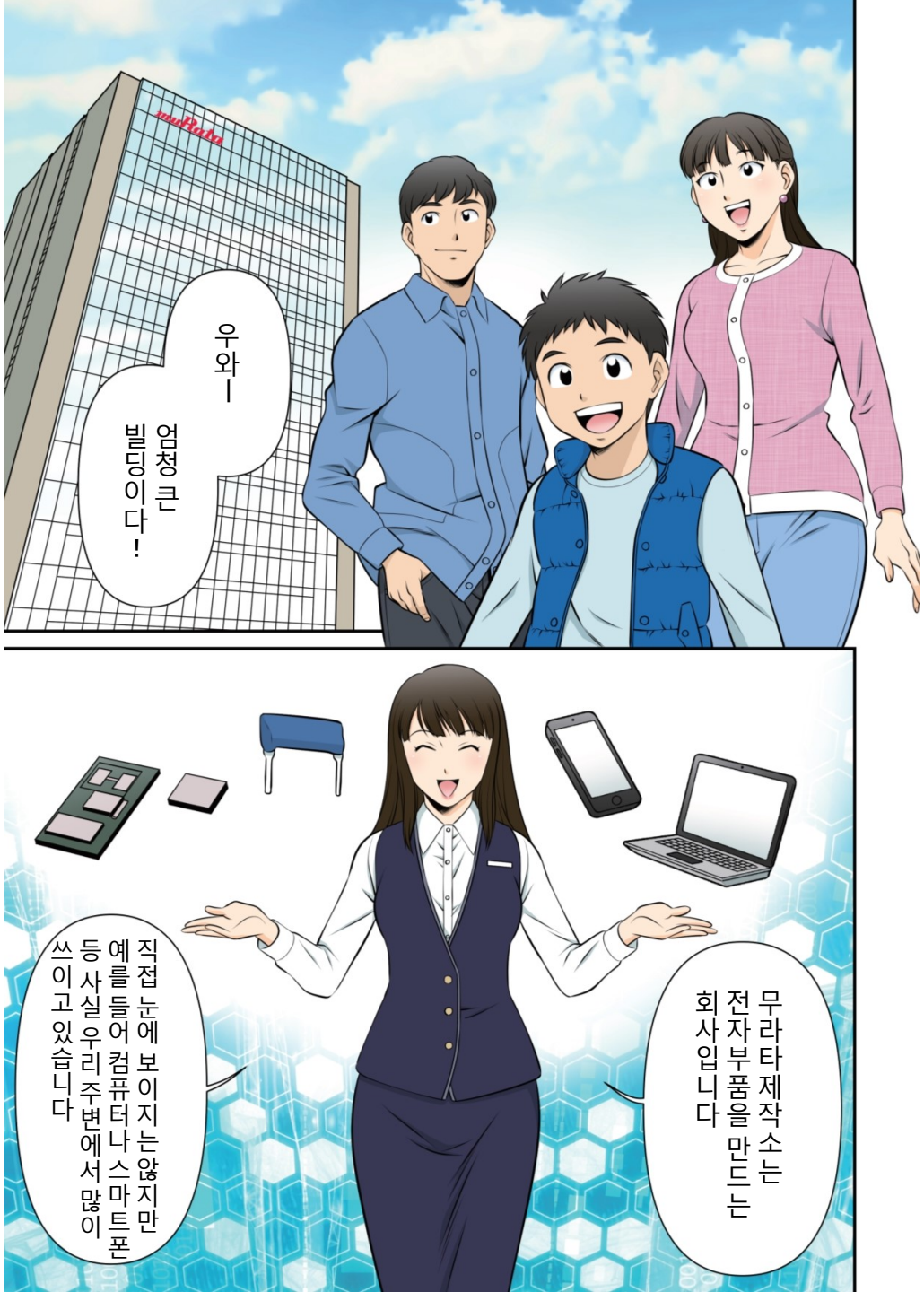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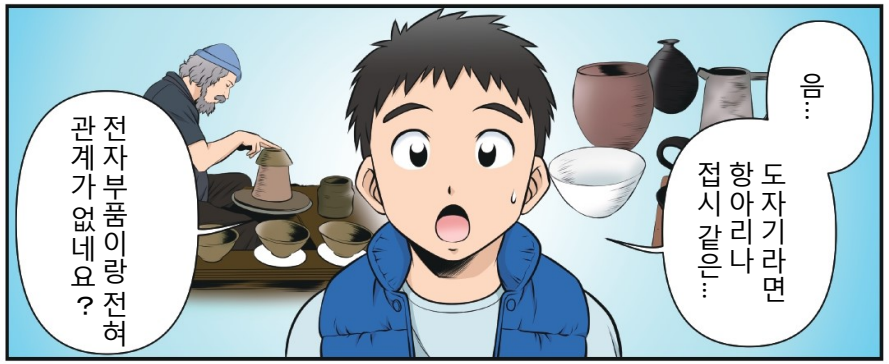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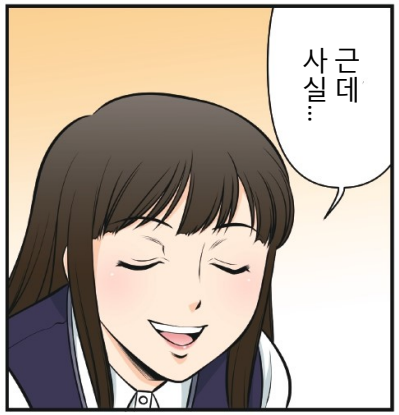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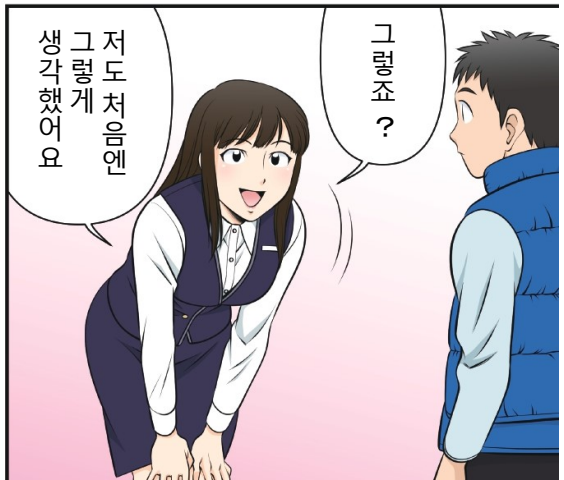

우와ㅡ
엄청 큰 빌딩이다!
무라타제작소는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도자기를 만드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일렉트로닉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하다!


음…
도자기라면 항아리나 접시 같은…
전자부품이랑 전혀 관계가 없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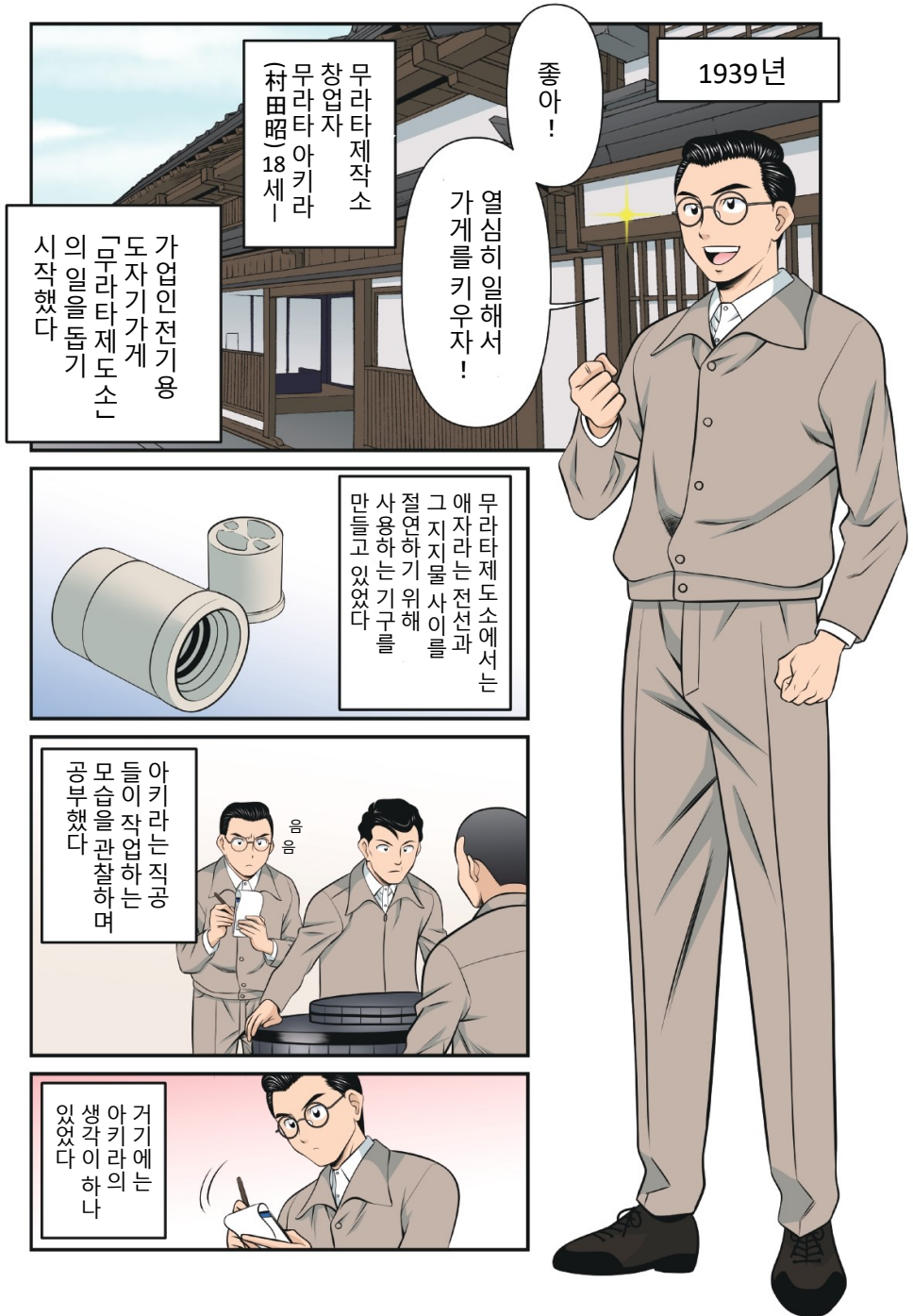

근데 사실…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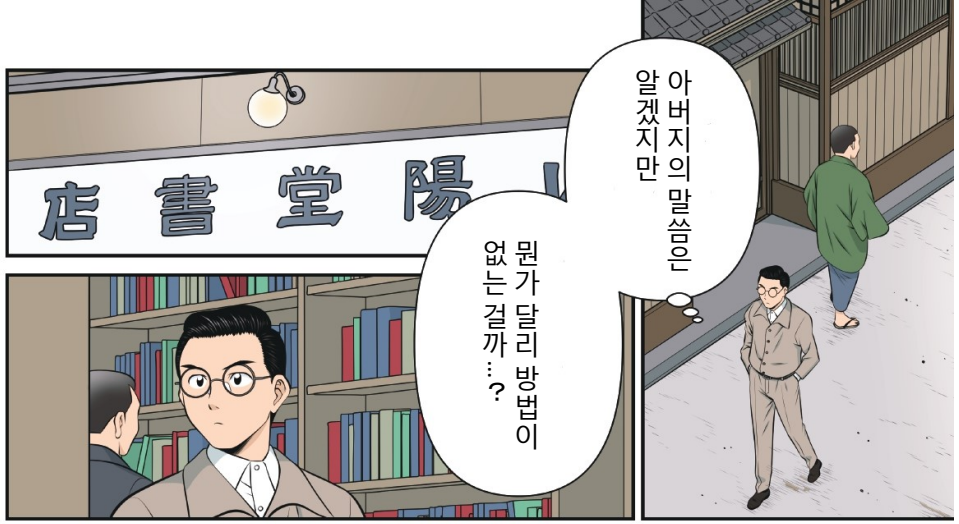
# 不思議な石ころ

무라타제작소 창업자 무라타 아키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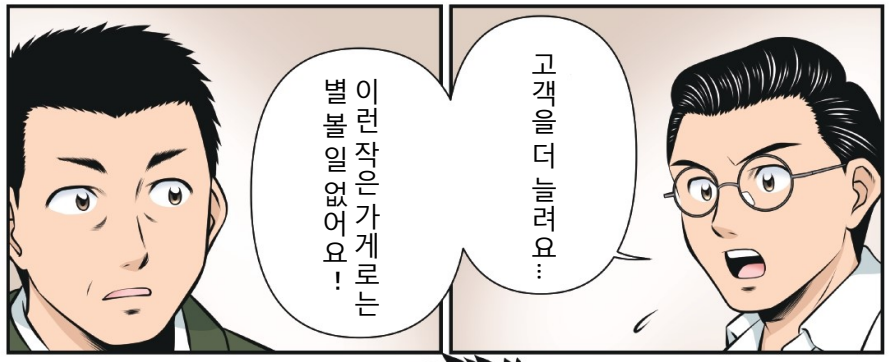



아키라의 소년 시절
뭐? 아키라가 요즘 밥을 안먹는다고?
네…
……
아키라는 어릴적부터 병약하여 13살부터 18살까지는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매일 같이 책을 읽고 요양하며 지냈다
주변에서 저 집에 폐병에 걸린 아이가 있으니까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해서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잘 먹는건 면목이 없어…
나 같은 건 차라리 없는 편이 낫겠어…
슥…
아키라!
네…
아키라…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열심히 몸조리하는 거야
알겠지?
……
겨우 남들만큼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보살펴 준 가족들에게 보답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려면…
이대로 흔한 도자기가게로 남아서는 안돼!
아버지!
아키라 무슨 일이냐?
가ㄱ…!!


店書堂陽
아버지의 말씀은 알겠지만
뭔가 달리 방법이 없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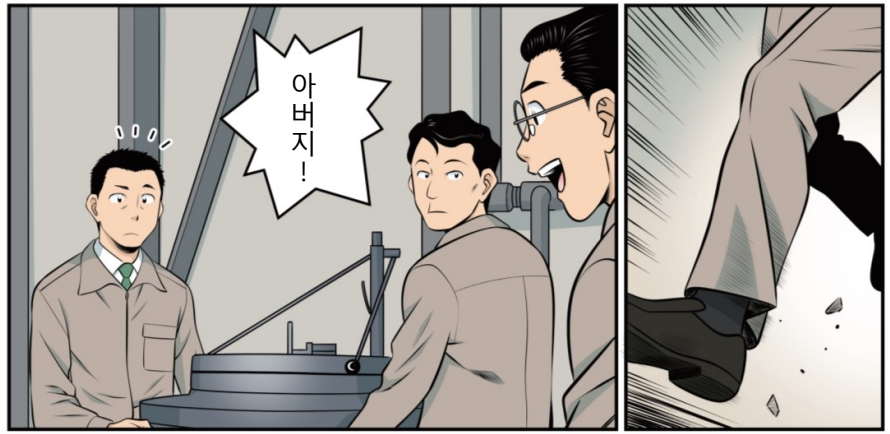

이건…
品製業窯殊特
특수도자기제품?
品製業窯殊特


고객을 더 늘려요…
이런 작은 가게로는 별 볼 일 없어요!


무슨 소릴 하는 거냐!
동업자의 일을 가로채서 어쩌자는 거냐!


동업자의 일을 차지하려고 하면 싸게 팔아야만 해!
그런 짓을 하면 동업자가 난처해지고 우리도 수익이 안 나서 곤란하다고!


온화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이 말은 아키라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다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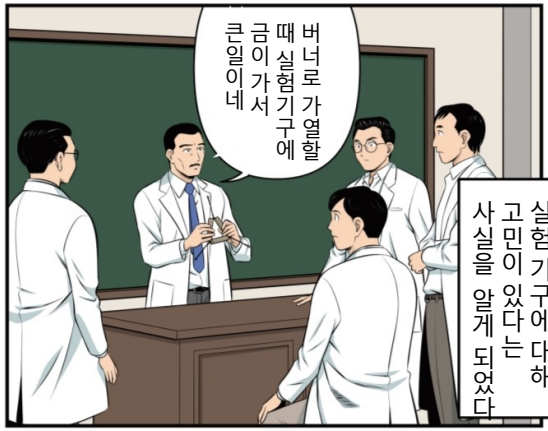

동업자가 하지 않는 거라면 괜찮은 거죠?
응?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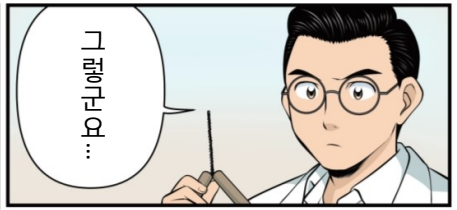

서점에서 찾았어요! 특수한 화학용 도자기라는게 있는데…
아무튼 여러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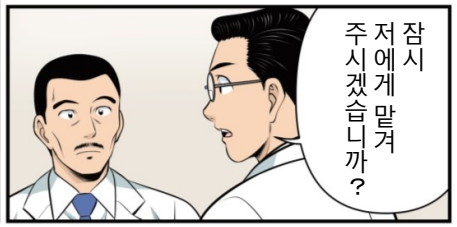

알겠다
그렇다면 해보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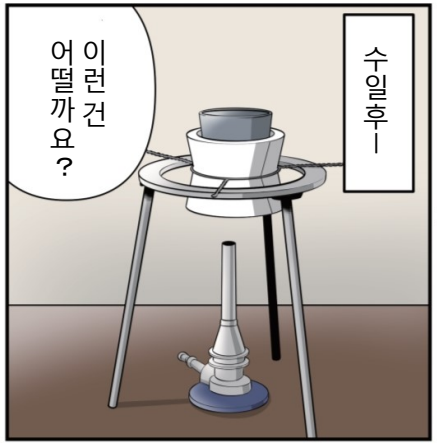

이런 일화가 그 후 무라타제작소의 「독자적 제품」이라는 장인정신에 대한 사고의 초석이 되었다
ようしやるぞ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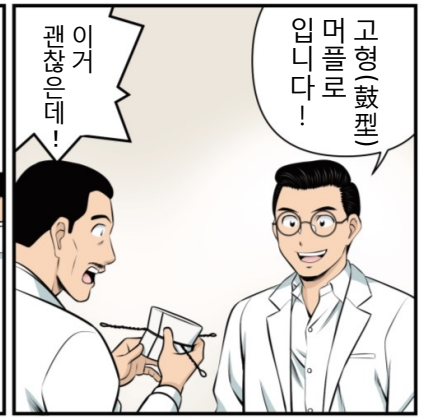

곧바로 교토의 연구소로 특수도자기에 대해 배우러 갔다


그 곳에서 실험기구에 대해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버너로 가열할 때 실험기구에 금이 가서 큰일이네


그렇군요…


잠시 저에게 맡겨 주시겠습니까?


수일후ㅡ
이런건 어떨까요?


고형(鼓型) 머플로 입니다!
이거 괜찮은데!


우리 회사도 필요해!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독자의 기술로 도움을 주니까 이렇게 고마워하는구나…

이렇게 드디어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했을 때

1941년 아버지 기치로(吉良)가 위암으로 47세에 타계했다

여동생은 13살…

남동생은 9살과 8살…

내가 잘 보살펴줘야 해…

아키라는 20세에 공장을 물려받았다

아키라는 어리고 경험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신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었다

시대는 전쟁 분위기가 짙어가는중…

아키라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

일본도 공습으로 언제 동서가 분단 될지 몰라…

관서지방에는 전파기용의 스테어타이트를 만드는곳이 없다네

자네가 만들 수 없겠나?

스테어타이트는 특수한 고주파 자기절연체야

특수자기를 사용한 독자의 기술이 필요해

만드는 방법은 머리로 알고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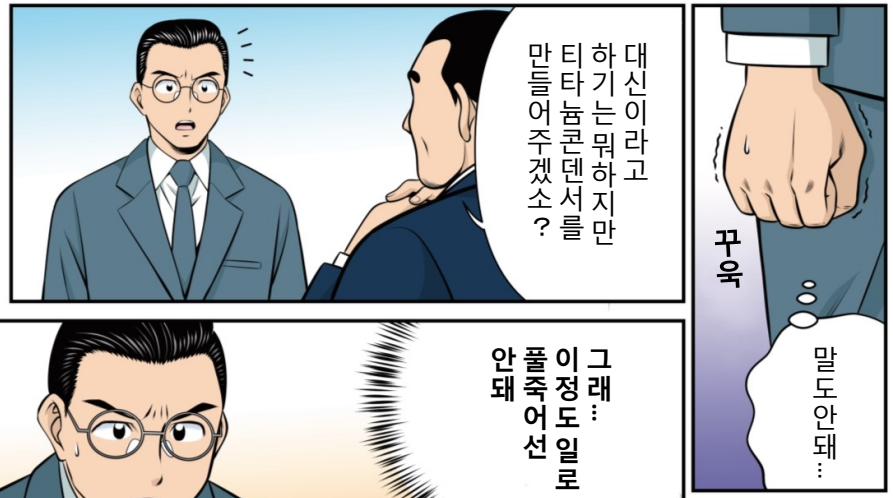
할 수 밖에 없어!

1944년 스테어타이트의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작은 공장을 만들고 「무라타제작소」로 이름지었다

이것이 이후 무라타제작소가 된다


아키라는 공장을
세워서까지
스테어타이트의
개발에 매진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스테어타이트…
아, 그렇군
개발이 더디길래
벌써 다른 회사가
만들어줬소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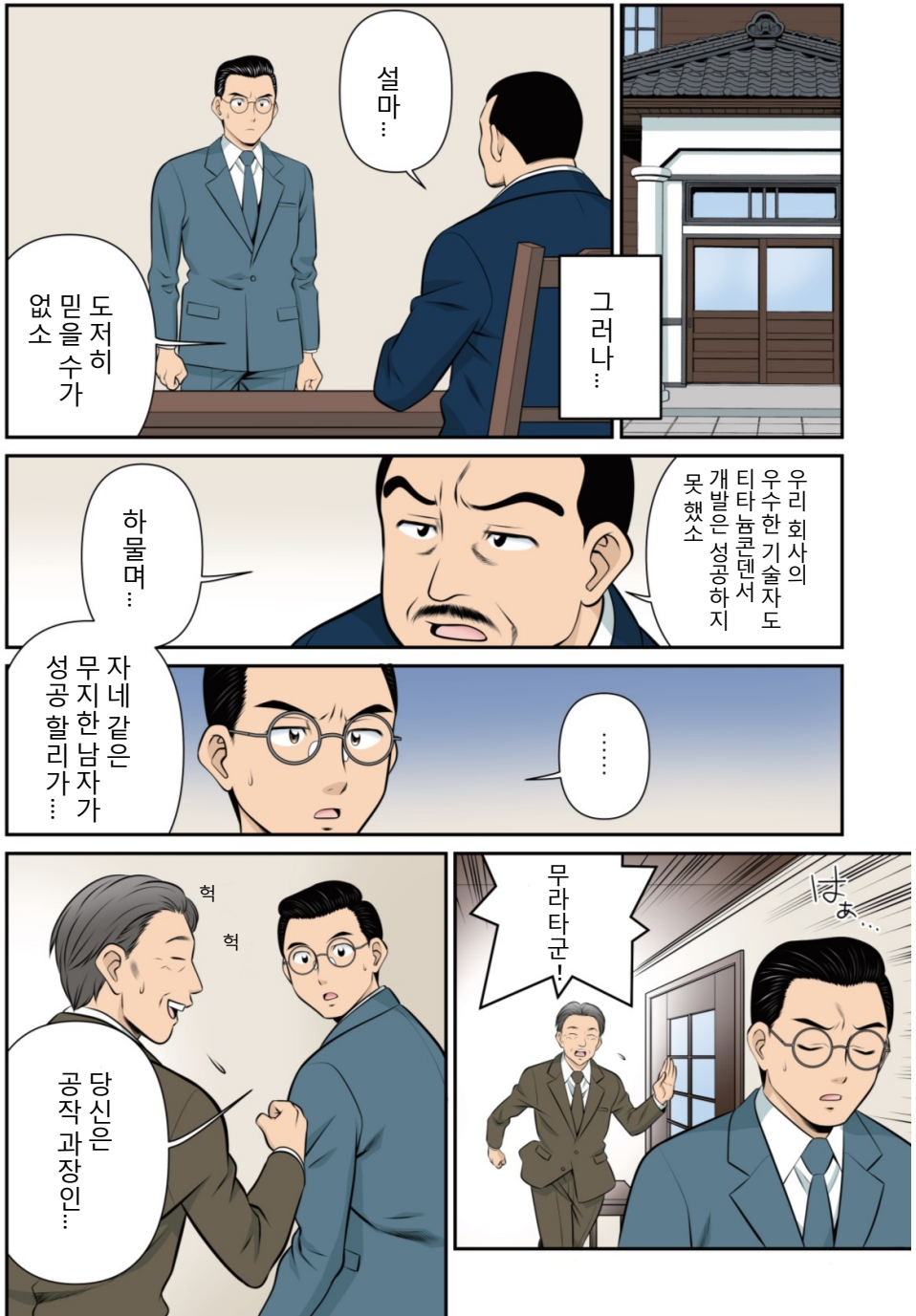

대신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티타늄콘덴서를
만들어주겠소?
꾸욱
말도안돼…
그래…
이정도 일로
풀죽어선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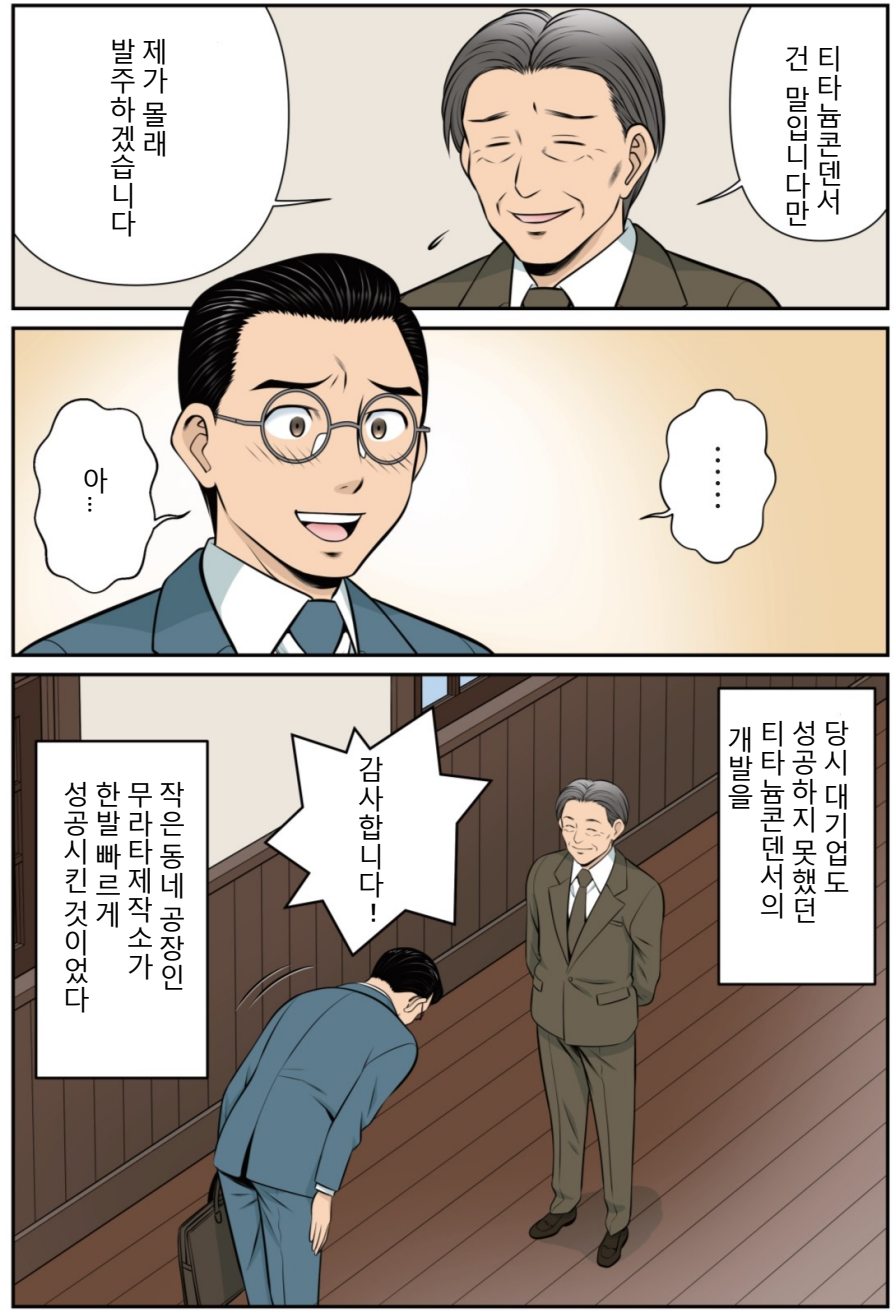

지금은 어쨌든
어떤주문이라도
받아야해
네
만들겠습니다


산화티타늄
자기콘덴서
통칭 티타콘
지금까지의
절연물과는 다른
전자부품이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신기한 소재(돌멩이)
앞으로 전기는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선 안 되게
될 거야
티타늄콘덴서가
사람들의 생활을
틀림없이 풍요롭게
해 줄 거야!


근처에 살고 계신 교토시 공업연구소 요업부장인 센다 노부아츠(千田信惇)씨를 몇 번이나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했다
만드는 방법의 기본은 지금까지의 절연체와 다르지 않아요 산화티타늄 주성분 도자기에…
점토를 조금 섞어 보면 어떨까…?
음…
은 전극을 붙여서…
지직…
지직
지직
리드선을 납땜하면…
은 도금은 도자기에 채색하여 굽는 기법과 같은 요령이야… 문제 없어!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기를 수 개월
됐다!
당장 판매하러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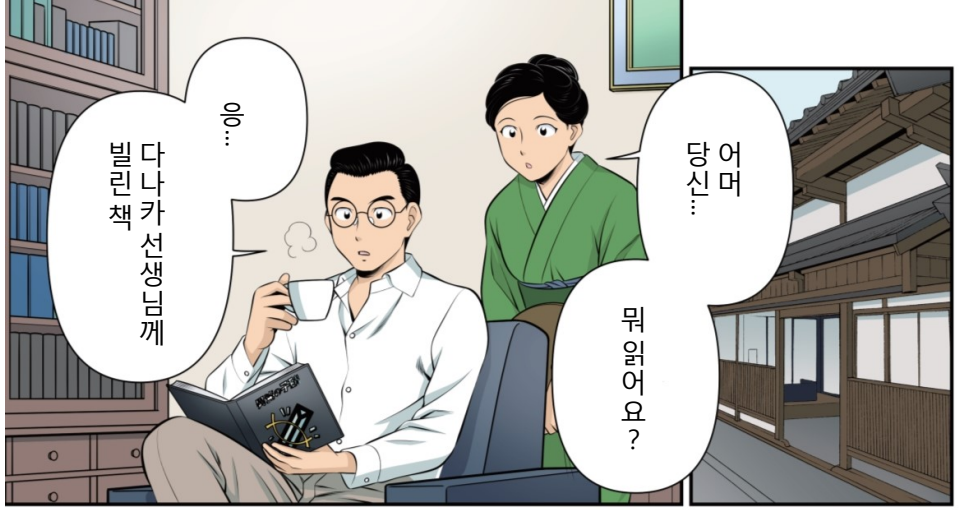

설마…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소
우리 회사의 우수한 기술자도 티타늄콘덴서 개발은 성공하지 못했소
하물며…
자네 같은 무지한 남자가 성공할 리가…
……
헉
헉
당신은 공작 과장인…
무라타군!
ほぉ…


당시 대기업도
성공하지 못했던
티타 늄콘덴서의
개발을
감사합니다!
작은동네 공장인
무라타제작소가
한발 빠르게
성공시킨 것이었다
……
아…
티타 늄콘덴서
건 말입니다만
제가 몰래
발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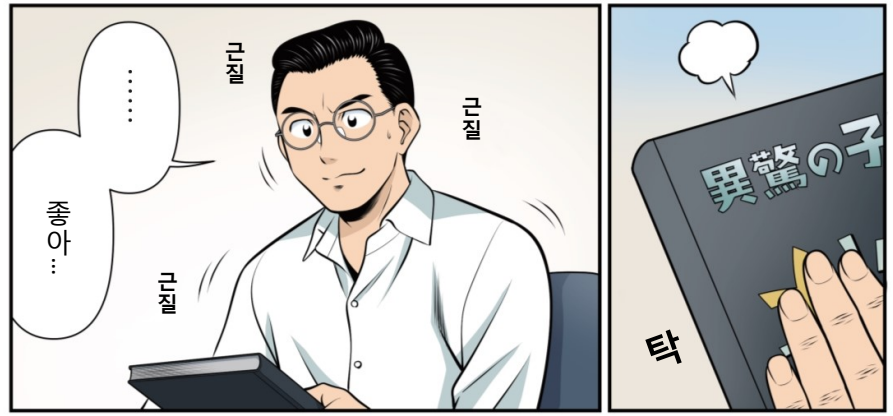

원래 있던 도자기 기술과
독자의 기술을 조합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곧 종전을 맞이하여
라디오가 민간 방송이 되고
라디오 붐이 일어났다
척척
만들자!
부품이 되는
티타 늄콘덴서는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럴 때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무라타씨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만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의뢰인은 교토대학 공학부 전기교실의 조교수 다나카 테츠로(田中哲郎)씨였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할 점멸등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연구생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부품에 사용할 절연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맡겨주세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교토대학의 조교수가 연구생의 생활비까지 걱정하다니…
탁
그만큼 본래 연구가 부실해지면 정말 안타깝겠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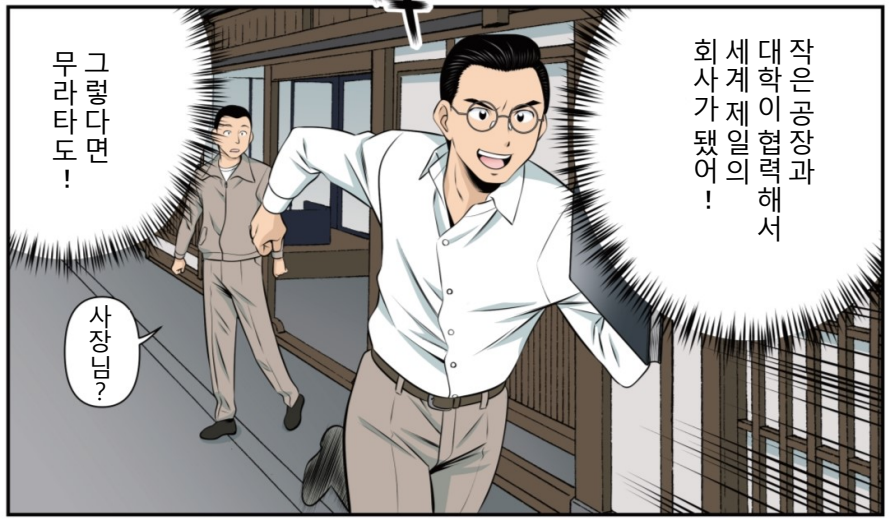

수일후
고맙네
아닙니다 샘플을 만든다든가 다른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싱긋
무라타군은 이 책을 알고 있나?
초자의 경이?
異端の子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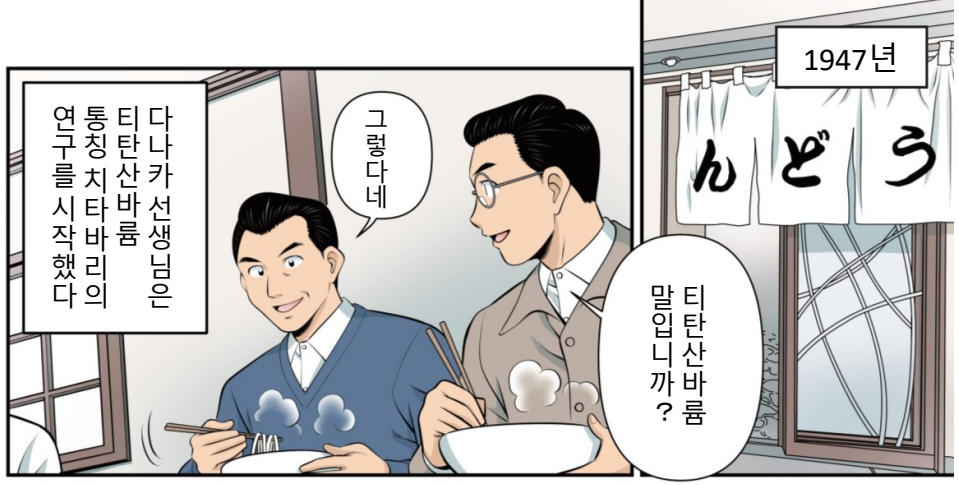

어머
당신…
뭐 읽어요?
응…
다나카 선생님께
빌린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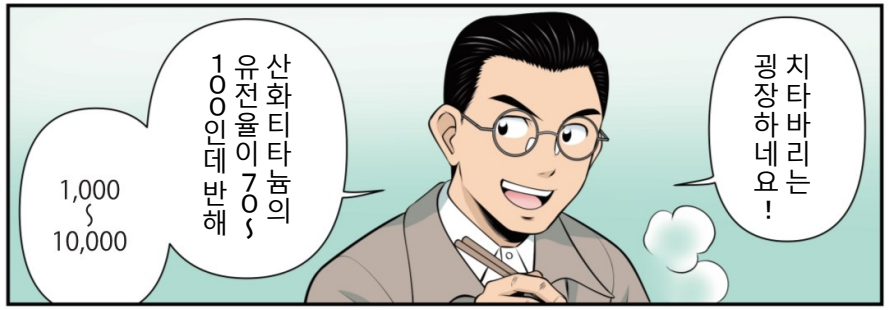

『초자의경이』
그 책의 내용은
독일에서
작은 렌즈 공장을
경영하던 자이스가
예나 대학에서
렌즈 연구를 하던
아베 교수와 만나
세계 제일의 광학기기
「칼 자이스」사를
세웠다는 내용이었다
ZEI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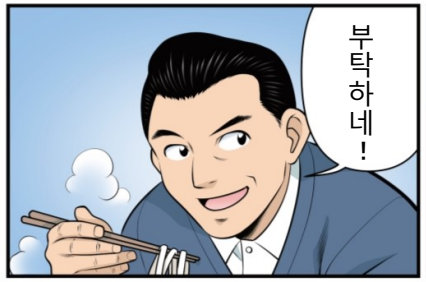

탁
異驚の子
근질
근질
근질
……
좋아…


나는
일본의
칼 자이스가 되겠어!
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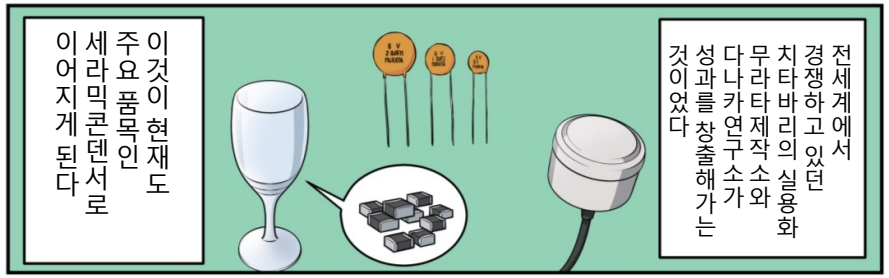

작은 공장과
대학이 협력해서
세계 제일의
회사가 됐어!
그렇다면
무라타도!
사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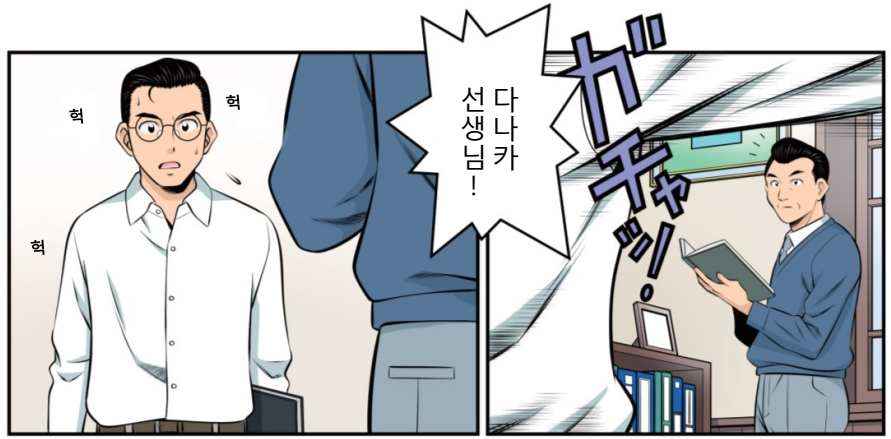

1947년
んどう
다나카 선생님은 티탄산바륨 통칭 치타바리의 연구를 시작했다
그렇다네
티탄산바륨 말입니까?


치타바리는 굉장하네요!
산화티타늄의 유전율이 70~100인데 반해
1,000~10,000


부탁하네!


함께 실용화를 목표로 하죠
우선은 질 좋은 재료를 구입하겠습니다


전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던 치타바리의 실용화 무라타제작소와 다나카연구소가 성과를 창출해가는 것이었다
이것이 현재도 주요 품목인 세라믹콘덴서로 이어지게 된다


다나카 선생님!
혁
혁
혁
ガチャ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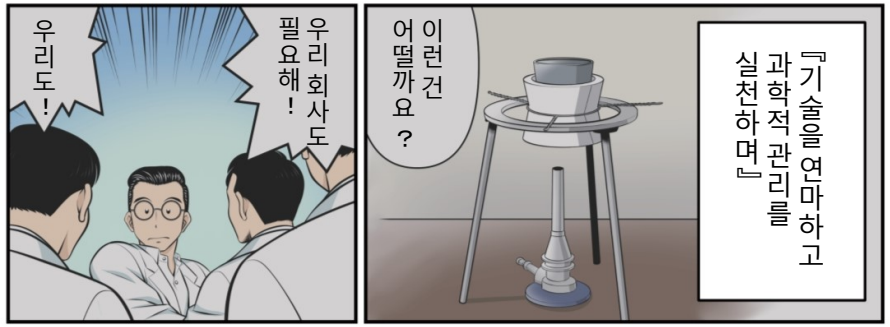

물론!
함께 합시다


이 책처럼 지도해 주시겠습니까?
異端の子


이 만남이 커다란 결실을 맺어…
무라타제작소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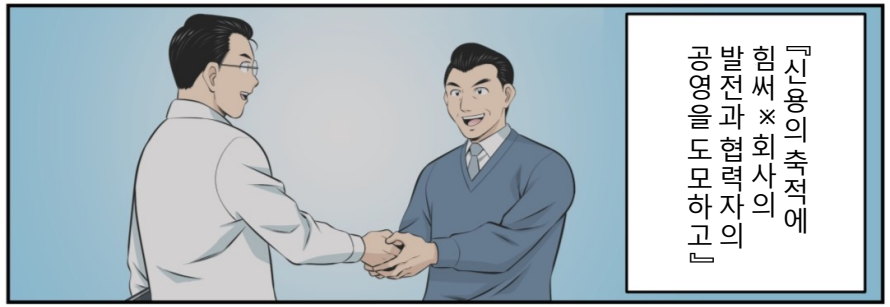

1950년
이전 교토의 요업연구소에서 신세를 졌던 센다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아…
센다 선생님!
후쿠이현(福井県)의 요업시험장의 공장장이 됐다네
한번 와주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하루 걸려서 도착하니…
아……
아무것도 없는 곳이네…
여기서 양질의 도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네


여기에 공장을 세우지 않겠나?
네에!?
때마침 교토의 공장도 비좁아졌기에 후쿠이현 미야자키마을(宮崎村)에 후쿠이 공장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 호쿠리쿠(北陸) 산인(山陰)지방에 공장을 세워나갔다
「공장 유치」하물며 「지역경제 창조」란 말도 없던 시절
「그 공장이 그 곳에 있는 것이 지역의 기쁨이며 자랑이다」를 신념으로 지역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무라타는 성장해 갔다
1954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이념을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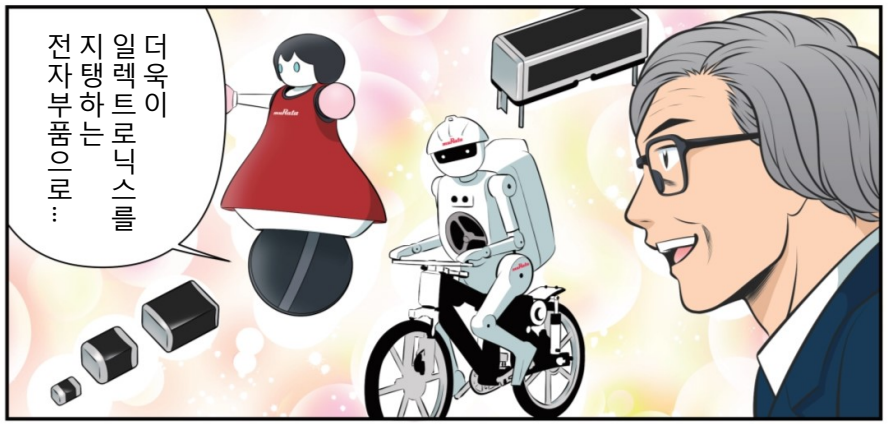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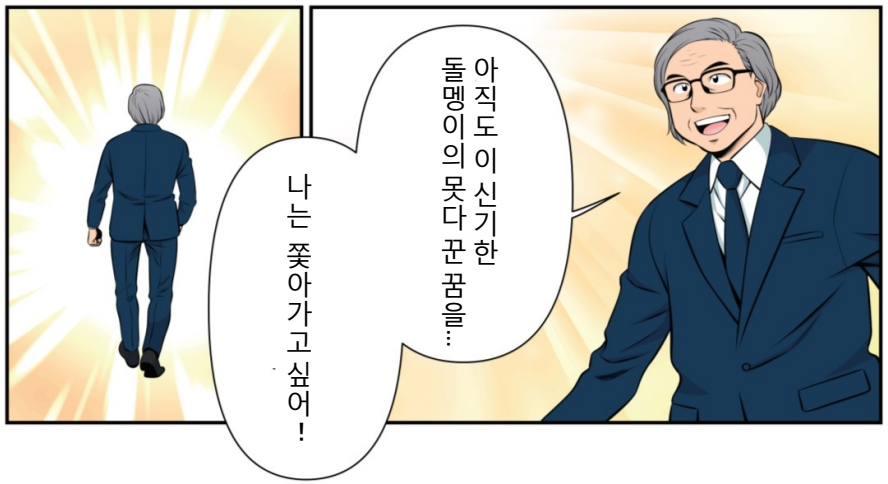

※1979년에 개정되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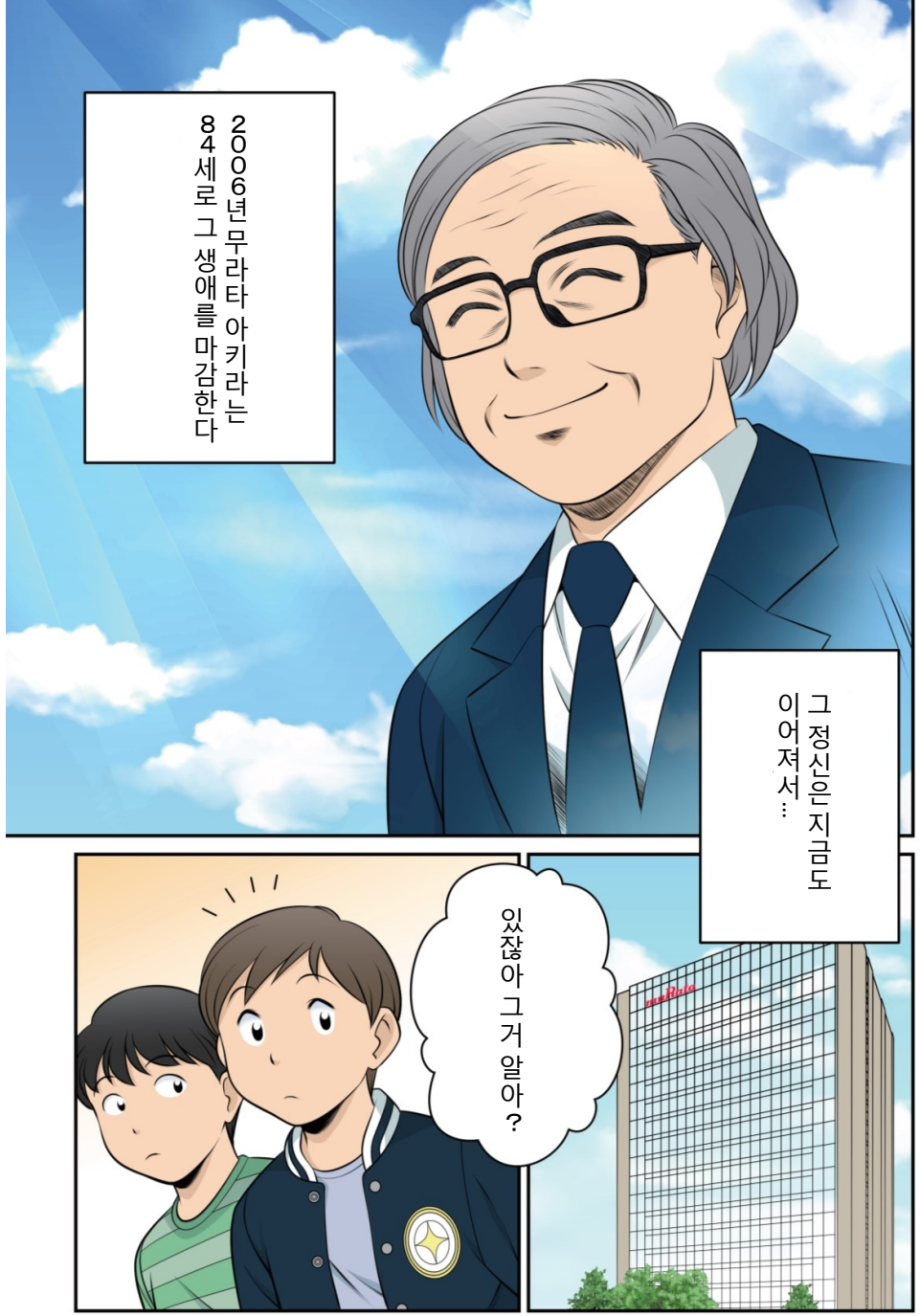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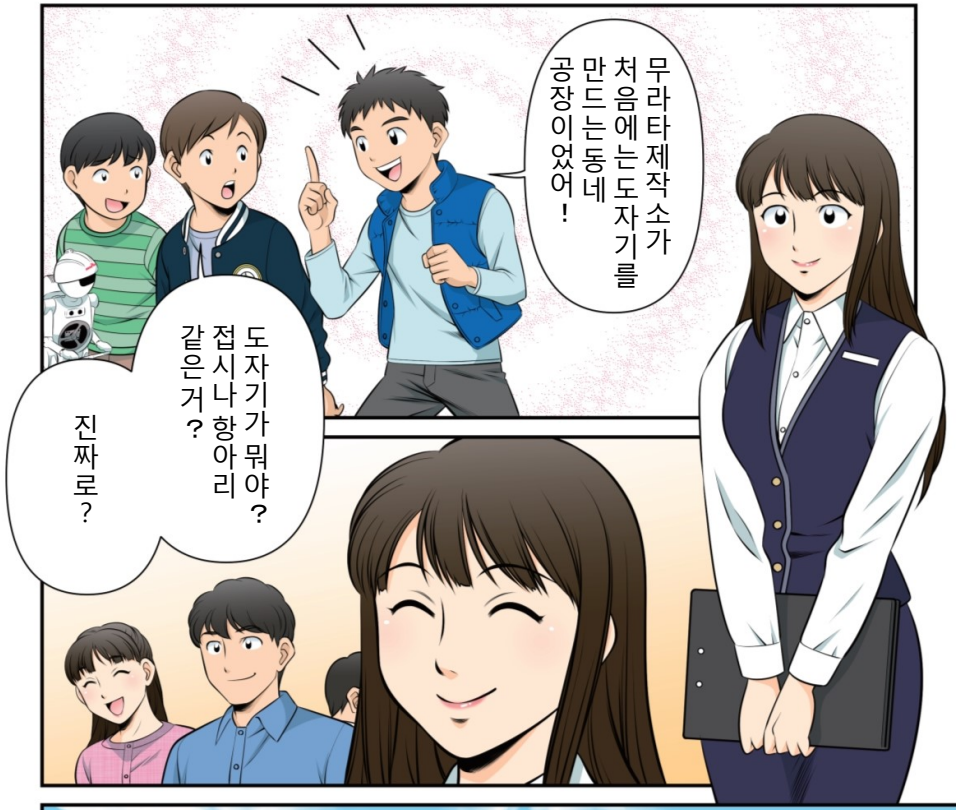







2006년 무라타 아키라는
84세로 그 생애를 마감한다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져서…
있잖아 그거 알아?


무라타 제작소가
처음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동네
공장이었어!
도자기가 뭐야?
접시나 항아리
같은 거?
진짜로?


무라타는 어느 시대나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과
미소로 가득 찬
그런 나날을 보내길 바라며
기술의 가능성을
추구해 갈 것이다